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 길을 묻는 이에게

제 744호 현대불교  
2009년 8월 12일(음 6월 22일) 수요일 / 불기 2553년  
법공양 페이지

21

# 진실로 상대와 나를 위한다면 안으로 불을 쬐세요

이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또 한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세상이 쉬지 않고 돌아가는 걸 보면, 그것이 마음과 마음이 전달돼서 한시도 쉬지 않고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같이 돌아가면서 하나로 살고 있지만 모습은 다 각각이 나뉠수록, 또 만났다고 하고 또 헤어졌다고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아버지가 왔다가, 남편이 왔다가, 아들이 왔다가 이렇게 순간순간 바뀌면서 돌아가듯, 우리가 헤어졌다 만나고 만났다 헤어지고 하는 도리가 바로 그 도리입니다. 둘이 아니면서도 항상 둘로 나누어지고, 둘로 나누어졌다가 또 하나로 뭉치고 이렇게 작업이 계속 되는 이치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어디서 왔는지를 필연코 알아야만 하겠죠. 물론 그 말을 하자면, 부모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말을 또 해야 하지만 말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일체 생명들을 막론하고 물주머니에서 나와서 물주머니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런 소리를 들어 놓으면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겠지만, 들어보지 못했다면 생각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듣고 자기 마음의 진로를 넓히든지 좁히든지 작용을 할 테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더운데도 불구하고, 바깥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나와야 되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한 치도 벗어날 수 없는 어항 속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한 치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증명하건대 우리가 공기주머니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하니까 우리가 이 도리를 알고 배우고 증득해서 그 어항 속을 벗어나야만 자유롭게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 세상에는 텔레비전도 보고, 듣는 것도 많고 보는 것도 많아서, 모두 너무 아는 게 많기 때문에 이 공부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좀 모르는 듯 하고 어리석은 듯 해야, 옛날의 선지식들이 화두를 주면 그냥 무지막지하게 밀고 넘어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화두선이 그렇게 빛을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해도 내가 아는 게 많기 때문에, 일론 쉽게 말해서 물질로 다 치달는가 하면 형상으로 치달고, 형상으로 치달는가 하면 모든 점에서 정신세계는 무시하고 돌아가는 경향이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디 그렇습니까? 이 만물만생은 다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을 하고, 또 우리 인간은 말과 말로 전달을 하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통신으로 전달을 하



그림 · 최주현

면서 살아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되는 도리를 여러분이 하나도 몰라요. 그저 조금씩 불꽃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해치워 버리고 그냥 말해 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자기를 자기가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찌어 먹고 갈갈이 뜯어 먹고 하는 경향이 그런 데서 벌어진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도 걸림이 없이, 돌 위에 세워 놔도 살 수 있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굶어서 고(餓)를 만들고, 자기가 굶어서 애고를 만들고, 자기가 굶어서 모든 병고를 만들고 이겁니다. 그러나 이 노릇을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대(四大) 육신은 지수화풍으로 한데 합해져서 이 세상에 나왔는데 지수화풍으로 뭉쳐졌기 때문에 지수화풍을 먹고 지수화풍을 또 내놓습니다. 먹는 대로 내놓습니다. 그럼 내놓는 것 가지고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바로 증발이 되고 모두 화(化)해서 일체 만

물만생에게 도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전달한 까닭에 다시 또 먹습니다. 그러니 내놓으면 먹게 되고, 먹게 되면 내놓고 이러는 작업이 계속되죠. 이 도리를 우리가 상세히 알아야지, 목탁 치는 것만 불교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과거에 살던 것, 미래로 인해서 오늘 현실에 오는 것, 이 전체를 삼라만상이라고 합니다. 삼세(三世)라고 그러죠. 또 삼심(三心)이라고 그러합니다. 그리고 또 삼독(三毒)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굴러오면서 교차하면서 살아나온 그 자기의 인과 업이, 선하게 행을 했다면 선행의 업이 있을 거고 악하게 행을 했다면 악행의 업으로서 진행되는 것이 여러분 몸속에 다 있다는 얘깁니다. 그것들로 구성돼 있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여러분의 마음의 체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위로는 일체제불과 돌 아닌 마음을 지니고서 자기 주인공을 진실히 믿고, 아래로는 그 믿는

마음으로써 체적질을 한다면 아래 내 몸속의 중생들은 스스로 제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이라는 말도 그런 뜻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 자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냐에 따라서 부처가 되느냐 중생으로 그냥 남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이 내 마음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돈오(頓悟)라고 한다면 깨닫는다고 하더라도 이 자생중생들을 제도해야 하기 때문에 점수(漸修)가 또 들어갑니다. 나를 깨치는 거는 쉬워도 돌 아닌 도리와 돌 아니게 나투는 도리를 포착하려면 그만큼 어려움이 따르다 이런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자생중생들은 내가 바깥으로 꼬달리게 되면 제도할 수 없습니다. 안으로 놓고 들어가야 통신이 돼서,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돼서 따라가서 제도가 되는데, 바깥으로 꼬달리면 절대로 통신이 되질 않아서 제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안에서 제도가 못되는데 어찌

내가 제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정(定)에 들어야 한다.' 이 뜻이 뭐냐? 그냥 정에 들러 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틀고 앉아 있으면 정에 드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닙니다. 양면을 다 작용하면서, 우리가 지금 내면에서 놓고 들어가는 작업을 하는 것이 정에 드는 방법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전달돼서 작용하는 그 묘법과, 그 묘용과, 그 광대무변한 법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빛으로 화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리를 전 세계에서 알면 좋겠는데, 가만히 보면 전부 타의에다가 기도하고 상대에다가 빌고 잘되게 해 달라고 하지, 자생을 제도하면서 자기를 자기가 체적질하면서 자기 완성을 하려고 작업을 하는 사람은 아주 적어요. 한다고 해도 그렇게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방법을 취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죽으면 그만이지' 하지만 죽으면 그만이지 아닙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뭐, 어차피 이렇게 나온 거 아무렇게나 하더라도 잘 먹고 잘 입고 살면 되지!' 이러한 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옷을 입었다가 더러우면 벗어 버리고 다시 새 옷을 입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뽀뽀도, 짙어서 땀이 들든 늙어서 땀이 들든 옷이 다하면 벗어 버리고 새 옷을 입게 돼 있습니다. 새 옷만 입을 뿐이지, 즉 말하자면 썩만 없어졌다 뿐이지 뿌리는 그대로 남아 있다 이 소립니다. 봄이 오면 새 풀이 또 다시 나듯이, 그 뿌리가 죽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불씨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일체 만물만생이 다 그러하며 저 별성이나 혹성이나 다 그렇습니다. 수명이 짧고 길고 그럴 수는 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그만이라는 소리는 아예 하지도 말아야죠.

우리 이 육체 자체도 실상이며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옷이 주어집니다. 세련되고 아주 좋은 옷으로 입느냐, 또 나같이 이렇게 못나 빠지게 옷을 해 입느냐, 하하하... 그렇지 않으면 짐승의 탈로써 옷을 입느냐, 독사의 옷을 입느냐, 그 여러 가지 옷이 많고 많은데 그것은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살고 있는 경향대로 주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텔레트로서 어떠한 백역을 맡을 때, 평상시에 잘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와 같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마음을 썼느냐에

22면으로 계속

## 불자정보

744호 | ●문의전화 : 02)732-1522  
●원고접수 : jabi82@naver.com  
FAX 02)737-0696

### 부산 대 사찰

- 사찰 내 20년 된 햇팥나무 50종 있음
- 복조법당 25평 단청필, 복조요사 30평 단청필, 벽돌집요사 2동 50평
- 명부전, 산신각, 용왕단, 종각, 약사여래상 15층
- 지하수 산수도 사용, 창고 2동, 화장실 2동, 심야보일러 사용, 사찰 내 주차 20대 이상
- 대지 : 300평 ●국유지 : 480평 (국유지 사용료 내고 있음)
- 가액 : 11억 5천만원

011-563-1545

### 사찰부지안내

- 입야 5천평
- 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면
- 경관이 수려하고 명당 조건을 갖추었음, 길, 물, 전기, 전화 모두 가능
- 2010년 개통되는 울산 KTX역사 에서 25~30분 거리에 위치함
- 가액: 평당 7만원

010-4174-8904

## 절터 (암자)

오래된 사찰이 있던 자리로 돌로 된 미륵부살님, 부처님과 산신이 모셔져 계시는 도량이 깊은 "터" (현재 마을에서 관리 하는 중)

- 마당 앞에 "청정계곡과 웅장한 폭포"가 있음.
- 토지 내 "산신터와 용신터"가 있음.
- 약400년 이상 된 노송과 계곡 옆 여러주 소나무 운치.
- 산으로 둘러싸인 정남향의 "배산임수"
- 마을 최상류 앞의 조망이 "탁~트인" 절경.
- 중앙고속도로 서대전 IC에서 7분소요.

충북 제천시 봉양읍 2천평  
2억8천만원 (평당 14만원)

문의 011-9840-9138

\*저는 불자로서 이 땅은 꼭! 절터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과 인연될 스님을 빨리 기다립니다.

##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계약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오 세 룡	051)632-0064 / 011-847-1211
대구지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충청지사	혜철스님	043)732-5560 / 010-9422-8453
경남 동부지사	혜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경남 서부지사	영민스님	055)355-7472 / 011-9312-222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6-629-1508
전북지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주지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1-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